- 심원마을

심원 마을은 반야봉과 노고단, 만복대가 삼면을 감싸 안은 달궁계곡 끝 마을. 해발 750m의 산꼭대기에 위치하여 '하늘아래 첫 동네'라 불린다. 고도가 높아 모기가 살지 못한다. 반야봉에서 발원하는 계곡물이 마을을 감싸고 돌아 마루에 앉아서도 계곡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별천지다. 더욱이 심원계곡 상류는 극상의 원시림이라 영구 자연 휴식년제로 지정되어 인적이 끊겼다. 때문에 오염이라곤 전혀 되지 않은 시원한 계곡물이 사시사철 흘러내린다. 계곡물은 어찌나 차가운지 발을 담그면 냉기가 오싹 끼쳐 계곡에서 발을 빼지 않고는 못 배긴다. 뱀사골이나 피아골계곡에 비해 암괴와 낙석들은 규모도 작고 불규칙한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층을 이루고 있는 하상기반암의 유로를 따라 소규모의 촉초와 급류형의 여울이 규모가 큰 소와 더불어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하상경관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원계곡운해



마을안내판

지리산국립공원탐방안내서_지리산관리사무소장 송인순_2003

- 뱀사골

뱀사골은 반야봉(1,732m)과 명선봉(1,586m)사이의 울창한 수림지대를 맑은 계류가 기암괴석을 감돌아 흐르면서 아름다운 소(沼)와 명소를 일구어 놓은 지리산 계곡 가운데 경치가 가장 빼어난 곳이다. 가히 폭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계곡이지만 수 없이 많은 명승지를 안고 있는 계곡으로 지리산 계곡 중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제일의 명승이라 할 수 있다. 뱀사골이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가 분분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지금의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자리에 송림사라는 절이 있었다. 이 사찰은 신라의 고찰인 구산선문 실상사보다 100년이 앞선 대찰로서 많은 고승들이 모여 수고하는 사찰이었다. 이 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음력 7월 15일 백증날(불가에서는 그믐이라 함) 불심이 가장 두터운 스님 한 분이 뽑혀 그날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은 다음, 신선바위에 올라 정성들여 기도를 드리면 그날 밤으로 사라져 신선이 되어 간다하여 이 행사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송림사에 고승 한분이 오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듣고 죽어서 신선이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있으나 살아서 신선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하여 그 연유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하고 모 절도사와 사의를 한 끝에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이 사실을 전달한 바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해에 선발된 스님께 비단옷(도표) 한 벌을 하사 하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옷깃에 비상을 발라 입도록 한 다음 신선바위 위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록 했다. 한편 송림사에서는 그 날 가시는 스님을 위하여 100여 명의 고승들이 모여 산에 들어가 100일 기도를 그리기로 했다. 100일 동안 정성껏 기도를 드린 스님들은 드디어 그날 저녁 선발된 스님을 신선바위에 모시고 스님 모르게 명주실 주리를 옷깃에 달아놓고 그 곳에서 훨씬 떨어진 신선바위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축시경 어디선가 찬바람이 일면서 깜박한 순간 불이 번쩍하면서 그 골짜기가 무너질 듯한 괴성이 일어났다. 모든 스님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니 신선바위에 올라 있던 스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보

려 명주실을 따라 없어진 스님을 찾아 어마어마한 용이 못된 이무기가 죽어 있었다. 이것은 많은 스님들의 정성어린 기도에 산신령님이 감동하여 용이 못된 이무기를 쳐서 죽이고 그 스님을 구해 낸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때부터 이 영험있는 산을 (반야심경을 뜻해서) 반야봉이라 불리워 오고 있으며 원래 용소를 용이 못된 이무기가 살이 있었다 하여 뱀소로 격하시켜 불러왔다. 또한 뱀이 죽은 골짜리가 하여 뱀사골(기사곡)이라 부르며 신선바위에 올라가신 스님들의 반은 신선이 되었다 하여 반산어리고 부르고 임금님이 비단도포를 하사하였다 하여 금포정이라고도 부른다. 그 때에 살아서 돌아온 스님이 정진 스님이었는데, 그님은 고승들의 100일 기도를 드렸던 장소에다 절을 짓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 동안 수도를 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한다. 그런데 정진스님이 열반하자 사리가 많이 나와 사리탑을 쌓고 그 암자를 정진암이라고 했으며, 지금도 정진암 터에는 기와장 등이 흩어져 전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뱀사골 계곡의 장엄한 쏘(沼)를 소개하면 아래로부터 돗쏘, 바람쏘, 석식, 교룡대, 탁용쏘, 신선바위, 뱀쏘, 병쏘, 병풍쏘, 간장쏘 등이 장관을 이룬다.



뱀소



탁용소

- 구룡계곡

구룡계곡은 용호구곡 또는 구룡폭포라고도 한다. 이처럼 이름을 달리 하는 것은 옛날 음력 4월 초파일이면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홉 군데 폭포에서 한 마리씩 자리잡아 노닐다가 다시 승천했다는 전설 때문이다. 남원군 주천면 호경리에 들어서면 여기서부터 지리산 국립공원이 시작된다. 호경마을은 원래는 내촌이였는데, 서기 1910년 이후 용이 노닌 쏘와 호고 있고, 산수가 수려하고 정치가 좋은 곳이라 하여 호경으로 불리워 오늘에 이른다.

구룡계곡의 용호구곡은 실제 12곡이나 있는데 수를 나타내는 글자 가운데 9가 제일 큰 수로 치기 때문에 9곡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호경리의 육모정에서 구룡폭포까지 4.4km의 계곡은 12곡이 아니라, 수 십곡이었고 12경이 아니라 발길 멈추는 곳에 이름만 붙이면 모두가 명소이기도 하다. 구룡계곡 전체가 한 덩어리의 바위덩어리인 양 연결되어 있고, 바닥 또한 모래나 자갈은 찾기가 힘든다. 그리고 바위덩이 틈새나 골 패인 곳에서 으레히 운치를 더하고 있는 소나무가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옥같이 맑은 계곡따라 폭포가 되고, 못이 되고, 여기에 철 따라 바뀌는 풍경은 자연의 조화가 극치를 이룬다. 용호구곡을 곡별로 소개하면

• 제 1곡 : 주천면 지리산 국립공원 매표소에 조금 못미치고 있는 송력동폭포를 1곡이라 하며, 이 곳을 흔히 약수터로 불린다.

• 제 2곡 : 불영추에서 100m쯤 오르면 왼쪽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오른쪽에 옥녀봉 밑 계곡의 용소가 2곡으로 옥용추라하며, 용호구곡의 9폭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이 곳 옥녀봉 어귀의 널따란 반석 위에 육모정은 남원 유림들이 400여년 전에 지어 여기서 풍류를 즐겼는데, 이 옥룡추를 육모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부른다.

• 제 3곡 : 육모정에서 300m 지점에는 황학산이 솟아 있고 북쪽은 암석층 급경사지가 조그마한 쏘가 바로 4곡인데, 학들이 이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 해서 학서암이라 했다.

• 제 4곡 : 학서암에 300m 쯤 오르면 유난히도 흰 바위가 물에

일명 구시소로 더 알려져 있다.

• 제 5곡 : 구시소에서 1㎞ 지점에 45도 각도로 급경사를 이룬 암반을 미끄러지듯 흘러내린 곳에 깉은 못이 5곡인 유선대이다. 이 유선대 가운데에 높이 20m의 반반한 바위가 우뚝 서 있어 5~6명이 앉아 놀기에 족하며, 이 바위에 금이 많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신선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때 신선들이 속세의 인간들에게 띄지 않기 위해서 병풍을 치고 놀았다 하여 은선병이라고도 한다.

• 제 6곡 : 유선대로부터 500m~600m 쯤 거리에 구룡산과 그 밖의 여러 갈래 산줄기에서 흘러내린 계곡 물이 여기에서 모두 합류한다. 그 둘레에 옹기 종기 솟은 봉우리 가운데 제일 뾰족한 봉우리가 계곡물을 내지르는 듯하여 그 봉우리 이름을 지주대라 하고, 이 곳을 6곡이라 한다.

• 제 7 곡 : 지주대로부터 왼쪽으로 꺽이면서 북쪽으로 1㎞ 지점에 거의 90도 각도로 깍아지른 듯한 문암이라는 암석층이 있는데, 이에 속한 산이 반월봉이고, 여기서 흘러내린 물은 층층암벽을 타고 포말려 비폭등이라 하며 이를 7곡이라 한다.

• 제 8곡 : 비폭등에서 600m 쯤 올라가면 거대한 암석층이 계곡을 가로질러 물 가운데 우뚝 서 있고, 바위 가운데가 대문처럼 뚫려 물이 그 곳을 통과한다 해서 석문추라 하는데, 바로 이 곳이 8곡이다. 특히 양편 절벽의 경치가 하늘에 닿았다 해서 경천벽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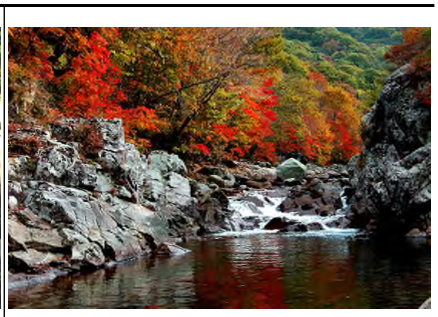
• 제 9곡 : 경천벽에서 500여m 상류 골짜기 양 켠의 우뚝 솟은 두 봉우리가 있다. 멀리 지리산에서 발원한 물주기가 두 갈래 폭포를 이루고, 폭포 밑은 각각 조그마한 못을 이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용 두 마리가 어울렸다가 양쪽 못 하나씩을 차지하고 물 속에 잠겨 구름이 일면 다시 나타나 서로 꿈틀거린 듯하므로 교룡담이라 하고, 이 곳이 바로 용호구곡인 마지막 9곡이다. 교룡담 이 곳에서 아홉 마라의 용이 살다가 등천했다는 전설과 함께 일명 구룡폭포라 한다.

- 달궁계곡

달궁계곡은 흔히 심원계곡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심원은 전남과의 도계에 위치하며 반선에서 도계인 심원까지의 7㎞를 심원계곡이라 불리기도 한다. 달궁계곡은 기원 초 삼한시대 때 마한의 별궁이 있었다고 해서 달궁이라 부른다. 마한시대에 황성과 정성을 가진 두 장군이 왕의 명을 받아 현재의 정령치와 황령치에 성을 쌓은 곳을 황령치라 불리게 되었다. 달궁계곡에는 풍치가 절경인 쟁기쏘와 하늘아래 첫 동네인 심원마을에 이르며 여기서 노고단, 반야봉, 천은사, 화엄사로 갈 수 있으며,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45㎞를 지리산 종주능선이 된다. 반선에서의 등산코스는 1박 2일의 경우가 반선-뱀사골산장(12㎞)-반야봉(4㎞)-임걸령(5.5㎞)-노고단(4㎞)-화엄사(10㎞)로 가는 35.5㎞의 코스이다. 2박3일의 경우는 반선-뱀사골산장(12㎞)-연하천(8㎞)-벽소령(6㎞)-세석평전(6㎞)-장터목(6㎞)-천왕봉(3㎞)-중산리(9㎞)의 총 54㎞ 코스이다. 3박 4일의 경우 반선-달궁(5㎞)-성삼사(9㎞)-노고단(3㎞)-임걸령(4㎞)-반야봉(5.5㎞)-뱀사골산장(4㎞)-토끼봉(2㎞)-연하천(6㎞)-세석평전(16㎞)-장터목(6㎞)-천왕봉(3㎞)-법계사(6㎞)-중산리의 총 72.5㎞ 코스가 된다.



달궁계곡



달궁계곡

－한라산(漢拏山), 지리산(智異山) 국립공원계획
전남당국은 준비 중

【광주】제주 한라산(濟州 漢拏山)과 구례 지이산(求禮 智異山)은 그 풍경이 절승일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웅대하므로 전라남도 당국에서는 그곳을 국립공원(國立公園)으로 지정케 할 의도이라 한다. 그리하야 사계의 권위자인 동경내무성 위생국기사 전촌(田村)박사를 초청하야 심사하기 위하야 도산림과(道山林課)에서는 그 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전촌박사는 오는 구월에 래도하야 전기 2대 명산을 답사하리라고 한다.


漢拏山、智異山
國立公園計劃
全南當局은準備中

동아일보1937. 6. 12(4면) 10

일제강점기조선동아일보구례기사

기사

지리산 국립 공원 동아 일보

-영봉 지리산(靈峯 智異山)에 공원건설계획

【부산】전남과경남의경계에 있는 지리산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밑에서 양도당국의 초청으로 공원설계에 권위 있는 내무성 기사 임학박사 전촌강(田村剛)씨가 지난11일초 부산에 입항 상륙하여 전남으로 갔는데 동(同)박사는 제주도와 지리산을 실지 답사하기로 한다. 전남측의 배면지대를 실지 답사한 후 오는 25일경 경남에 와서 엄산업부장의 안내로 약 오일간 지리산을 실지 답사한 후 일대공원설계를 할 것인데 경남도당국에서는 공원설계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전남당국과 대학연습림 관계지방민과 협력하야 적극적으로 지리산공원화를 기도할 것이라고 한다. (사진은 지리산)


靈峯智理山에
公園建設計劃

동아일보 1937. 9. 13 (3면) 1

일제강점기조선동아일보구례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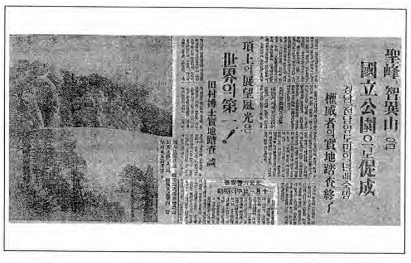
- 성봉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촉성
경남 전남 양도민의 년래 숙망 권위자의 실지 답사종료

【진주】 조선팔경(朝鮮八景)의 제3위로 당선된 성봉 지리산은 경남과 전남의 경계에 있는 관계로 양도인이 국립공원 건설을 요망하야 계획하는 차에 금년 양도당국의 추선으로 내무성기사(內務省技士) 임학박사(林學博士) 전총강(田村剛)씨를 초청하야 지리산을 실지 답사하야 완전한 설계를 얻어 실지계획을 세우기 위하야 얼마전부터 전촌박사는 嚴산업부장안내로 전남으로 가서 실지 답사에 착수하야 오랫동안 장엄한 지리산의 대자연을 연구하고 주도한 설계를 마치고 지난 이십구일 전주에 도착하야 망월려관에 투숙하고 일일 아침에 부산으로 출발하였는데 박사는 왕방한 기자에게 실지 답사한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상의 전망풍광은 세계의 제일! 전촌박사 실지답사 담"

지리산은 일본내지의 국립공원과 대만의 국립공원에도 보지 못할 특징이 많습니다. 삼림의 장엄이라든지 군봉의 배치며 계류의 절묘와 군데군데 고대의 사찰이 많이 있어 불교와 신선설(神仙設)의 영원이 깊은 곳이올시다. 정상의 전망풍경으로 말하면 세계적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양도민이 총독부에 요망하야 하로속히 실현되도록 진력하여야 될 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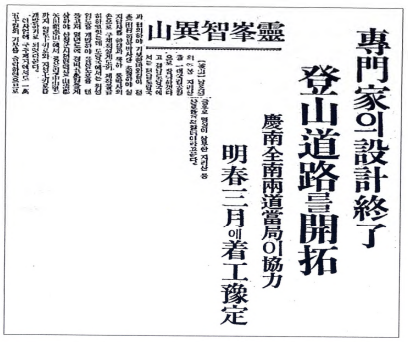
일본내지에는 국립공원이 십이개소나 있고 대만에도 국립공원이 삼개소나 있는데 조선에는 아직 없습니다. 금강산은 곧 실현된다는데 지리산도 금강산 차위의 공원은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설계는 도라가서 완료 되는 대로 보낼 것인데 속히 건설될 여하는 양도민의 성력여하에 있는 줄 압니다.


聖峰智異山을
國立公園으로促成
世界의第一
項上의展望風光은

동아일보 1937. 10. 3 (8면) 1

-영봉 지리산전문가의 설계종료
등산로를 개척 경남전남 양도약국이 협력 명춘삼월에 착공예정

【부산】 남조선의 영봉 지리산을 일대 국립공원으로
장식하겠다고 경남도당국에서는 전남도당국과 협의하야
기보한바와 같이 전촌임학박사를 초청하야 실지 답사를 한 결과
목하 동박사의 손으로 구체적 설계의 제작을 급히 하고 있는데
도당국에서는 위선 임도를 개발하야 등산로를 매들고저 명년도에
예산 오만원을 계상하야 산청군 시천면 덕산에서 중산리까지
임도 십키로와 지선 칠키로를 개발하기로 되었다 한다.
이 사업에 구주제대서도 일만 오천원의 기부를 승낙하였으므로
금후로 명실상부한 지리산 등산로를 개척할 터이라고 한다..



靈峯智異山

專門家의設計終了

登山道路를開拓

慶南全南兩道當局이協力

明春三月에着工豫定

동아일보 1937. 11. 6 (7면) 6

일제강점기조선동아일보구례기사

-인접면장발기로 지리산 보호조합 창립
조합원 사만 명 돌파

【남원】 신춘을 마지하면서 조선팔경의 하나인 지리산에 명랑보 팔경당선에 국립공원 후보지로 날로 승천의 세로 호조를 받고 있는데 인제는 보호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남원군 운봉면 산내면, 함양군 마천면, 휴천면 산청군 금서면 등 5개면 면장이 발기하여 창립하고 각 면장이 창립위원장 각 구장이 위원이 되고 조합원은 사만명이란 다수 인원이고 조합수는 삼십처나 된다고 한다. 지리산으로 말하면 영산에다 팔경에 국립공원으로서의 발전이 된다 하나 아직까지 제반을 보호 할만한 기관하나가 없어 심히 딱한바 이었는데 전기 각 면장이 경대(경대)연습림의 지시를 받아 창립하였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취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삼림화재예방 급 소방
일. 윤엽수눈엽채취 방지
일. 벌목침간 기타가해행위 방지
일. 표조림지표목 기타 표식(표식)의 훼손방지
일. 조림목급 유용치수의 훼손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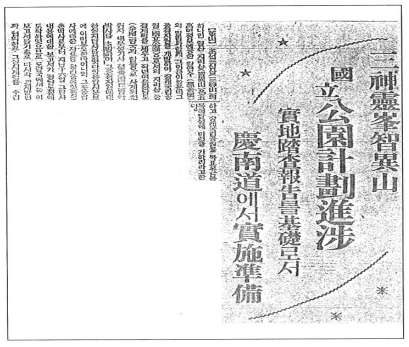

隣接面長發起로
智異山保護組合創立
組合員四萬名突破

동아일보 1938. 1. 11 (7면) 5

일제강점기조선동아일보구례기사

-삼신영봉 지리산 국립공원계획진섭
실지 답사보고를 기초로서 경남도에서 실시준비

【부산】조선 삼신산의 하나인 영산 지리산은 오만정보에 긍한 활엽수의 밀림과 함께 그 이름 높은바 그 풍경자원을 개발하야 장래 국립공원으로서의 지리산풍경계획을 세우고 작년 여름 전남도당국과 합동으로 사계의 권위자 내무성기자 전촌(전촌)임학박사를 초빙하야 풍경자원에 대한 실지 답사를 하였다함은 당시 본보에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 후 동답사에 대한 보고서가 경남도청에 도착 하였으므로 도당국에서는 이보고서를 기초로 다시 각 관계방면과 협의한 후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장래 국립공원을 목표로 근본 목적 달성에 마력을 가하리라고 한다.


三神靈峯智異山
國立公園計劃進涉
實地踏査報告를基礎로서
慶南道에서實施準備

동아일보 1938. 5. 18 (4면) 1

일제강점기조선동아일보구례기사

-삼신영봉 지리산의 국립공원를 평정 관계자협의회 개최

【부산】조선 삼신산의 하나인 영봉 지리산의 국립공원계획은 기보 한바와 같이 작년여름실지 답사한 내무성기사 전촌(田村)임학박사의 보고에 기하야 점차 계획이 진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오는 13일부터 진주사방사무소(晉州砂防事務所)에서 경남도 산업부장(嚴産業部長) 고교산림과장(高橋山林課長) 및 구주(九州) 경성 양대학연습림 사무소 주임 등이 회합하야 전산 五萬여정보에 긍한 활엽수와 그 외 명목진수(名木珍樹) 및 진조괴수(珍鳥怪獸)로서 유명한 지리산의 국립공원화에 대한 대평정을 하고 몬저 등산도로 숙박소 휴식소등을 설치하야 일반등산자의 편익을 도할 제반문제에 긍하야 타합 협의하기로 되엇다 한다.


三神靈峯智異山의
國立公園化를評定
關係者協議會開催

동아일보 1938. 6. 12 (4면) 4

일제강점기조선동아일보구례기사

-지리산을 국립공원화로
제대교수 산림과등의 조사대 등반

【진주】 작년 구월 말에 경도제대(京都帝大)의
전촌박사(田村博士)가 지리산(智異山) 한라산(漢拏山)을 조사하고
국립공원으로서 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그때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이제 지리산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관려하여
도에서는 금년에 들어스면서 구체적으로 공원문젤ㄹ 진행하려는
지음 지난 14일 고교 산림과장(山林課長)과
엄산업부장(嚴産業部長) 경도 구주(九州)제대의
연습이주임(練習林主任) 전문기술가(專門技術家) 칠인과 아울러
조사대로 지라산 도중 진주에 들리어 15일 오전
통구서장(捅口署長) 대림군수(大林郡守)와 등산도로문제에 관하여
협의하고 곧 지리산 대원사(大源寺)로 향하엿는바 이번을
기회로하야 지리산의 국립공원계획이 자못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동아일보 1938. 6. 20(2면) 6

일제강점기조선동일보구례기사

지리산 위치표지판 설치 현황도